

韓國의 漢字 敎育과 敎育用 漢字*

－ 漢字選定 方式의 問題點 爲主 －

李圭甲**

目 次

1. 緒論
2. 漢字 敎育 現況
3. 漢字 敎育을 위한 漢字의 選定
4. 敎育 段階別 漢字 選定 및 敎育 活用에서의 一致度
5. 結語

1. 緒論

동아시아는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고도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이해가 필수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전부터 한자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과거에는 어떠한 한자를 가르치고 얼마나 가르치는가에 대해 확실하게 규정된 것은 없었고, 각각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적정량의 한자를 배우고 익혔다.

우리의 경우 과거에는 『千字文』을 비롯하여 『童蒙先習』과 같은 책을 통하여 한자의 교육을 시작했으나, 국자감이나 성균관 같은 고급 교육기관에서 특정 서적을 학습하는 것을 제외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몇 글자를 배워야 한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인문학총연합회에서 주관한 “2014년 중국 인문학자 초청 인문학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임을 밝힌다.

** 延世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敎授

다는 의무량은 물론 학습 기간에 대한 것도 전혀 설정되지 않았다. 현대에 들어와 국어 전용과 국한문 혼용의 논쟁을 거치면서 교육부에서 한문교육용기초한자¹⁾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800자를 지정했다. 그리고 이를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하도록 하면서, 시기에 따라 한문 교육은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한글 사용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한자의 사용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한자의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의 '숫자로 살펴보는 우리말'에 근거하면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약 51만개 중 한자어 비율은 58.5%라 한다. 그렇다면 우리 말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한자를 익혀야 한다. 또한 이웃의 중국이나 일본도 모두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한자를 배우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이와 같은 한자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적절한 수의 한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습시키기 위한 교육용 한자를 지정했다. 그런데 이 교육용 한자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학교나 혹은 사설 기관에서 이것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교육용 한자의 선정 기준과 중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수준별로 채택하고 있는 한자의 선정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漢字 教育制度 및 教育對象 變遷過程

삼국시기에 우리 나라로 한자가 전래된 이후, 한자의 교육은 자연스레 이

1) 이하 “교육용 한자”로 약칭함.

루어졌다. 각 시대별로 정식 교육기관이 존재했음은 물론, 고려시기부터는 사적으로 교육하는 서당까지 만들어져 학생들에게 한자를 교육했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말까지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전체 국민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국민 모두에게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글자를 익힐 수가 있었는데, 다만 초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한글전용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한자를 배우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952년도부터 국한문혼용 정책이 시행되어 초·중·등 국어교과서에서 한자를 접할 수 있었으며, 이후로는 정책에 따라 한글과 한자 교육이 수시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45년 한자사용폐지(학무국 조선교육심의회)
- 1948년 한글전용법 공포
- 1952년 초등학교 4,5,6학년 국어교과서 상용한자 1,000자 범위내에 한자병기
- 1964년 초등 4년이상,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한자어 사용
- 1969년 한자교육 중지
- 1972년 중·고등학교 한문교육 실시. 교육용한자 1,800자(중등 900, 고등 900) 선정발표.
- 1997년 중·고등학교 한문교과목을 의무교육에서 제외. 학교별로 선택 교육할 수 있도록 함.
- 2000년 교육부 교육용한자 1,800자(중등 900, 고등 900) 수정 발표²⁾

어쨌든 위와 같은 교육정책의 시행에 따라 현재는 중·고등학교에서 한문교과목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각 학교마다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게 됨에 따라 한문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은 학교도 상당수 출현하게 되었다. 정식 교과목으로서 한문을 처음 접하게 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2007년부터

2) 李允子, 『韓·中·日 教育用 常用漢字 比較研究』,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6. 제10-12쪽 참조.

터 2012년까지의 전국 중학교 학급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학교의 재량에 따라 한문을 선택한 학급수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³⁾

<표 1> 연도별 전국 중학교 학급수 및 한문선택 학급수

구분	전체 학급수	한문 선택 학급수	비율(%)
2007년	58,950	40,846	69.29
2008년	58,804	40,285	68.51
2009년	58,396	39,712	68.00
2010년	58,373	37,080	63.52
2011년	57,830	27,242	47.11

이 통계를 보면 한문을 선택하는 학급수는 전체의 7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2009년까지는 그다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2010년부터는 한문을 선택하는 학급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대폭적인 감소가 이루어져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한자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중학교 교과에서의 한문선택 학교수가 나타내는 것은 公教育에서의 통계이지만, 이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한자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설 기관에서 실시한 한자능력시험의 응시자 변동 상황이다. 학교에서의 선택은 학생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교 당국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이지만, 사설 기관에서의 통계는 완전히 자기 의지에 의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시험은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모두 망라되어 있어 한자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응시생이 있는 사설 한자능력시험 실시 기관인 한국어문화에서는 1992년부터 한자의 보급을 위해 자체적으로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자로 검정시험의 1-3급수의 자격은 교육부로부터 공식급수자격인증을 얻었다. 이 기관에서 실시한 한

3) 김명수, 전국한문교사모임 홈페이지 hanmun.eduhope.net 활동가 게시판 1836번 (2012.11.16). 이는 “2012년 교육연감”을 반영한 통계치임.

자능력검정시험 응시자수의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표 2> 연도별 한국어문화 주최 한자능력검정시험 응시자수

시기	응시자수(명)	비고
1992-2000년	242,542	
2001년	503,166	국가공인
2002년	766,831	
2003년	781,910	
2004년	1,048,030	
2005년	1,126,252	대입 한문선택
2006년	875,325	
2007년	711,575	
2008년	589,480	
2009년	476,958	
2010년	335,139	
2011년	235,238	
2012년	172,918	
2013년	129,819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까지는 사회에서의 한자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에 정부 차원에서 공인급수제도가 생기자 한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러한 관심은 2005년도에 대입 수학능력검정시험에서 한문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에 이러한 열기가 식기 시작하고, 동시에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이와 유사한 한자검정시험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기관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면서 시험에 응시하는 수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부 한자를 병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금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4) 본 통계는 (사)한국어문화회에서 제공한 것임.

3. 漢字 教育을 위한 漢字의 選定

한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사회에서 한자를 배우고 가르쳤다는 말과 통한다. 이것은 다시 어떤 한자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과 연결된다. 다음에서는 교육을 위한 한자의 선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漢字 教育을 위한 各국의 選定 現況

한자는 매우 많지만 누구나 그것을 모두 다 배울 필요는 없다. 한자문화권의 주요 국가인 韓中日 세 나라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한자가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한자를 지정하여 학교에서 이를 교육하도록 했다. 이를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中國 : 3,500자(語文課程標準)
 臺灣 : 4,808자(常用國字標準字體表)
 韓國 : 1,800자(教育用漢字)
 日本 : 2,136자(新常用漢字表)

위의 숫자는 각 국가별로 학교에서 교육하도록 정한 모든 글자들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교육에 사용할 글자수를 배정했는데, 각국의 기초과정에서 교육하는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국 : 초등학교에서 “읽기”는 3,000자, “쓰기”는 2,500자를 교육하고 있

5) 3.1과 3.2 및 4.2에서 기술하는 논지의 주요 내용 및 도표는 2014년 8월 16일 개최된 “The 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ulture of Chinese Characters and Language”에서 본인이 발표한 “初學者教學用漢字選定問題探究”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본 논문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다. 또한 漢語水平考試 1~3級用으로 1,299자 지정하여 이를 활용한 어휘 교육을 하고 있다.

일본 : 초등학교 교육용으로 1,006자를 지정해 교육하고 있다.

한국 : 중학교과정에서 900자를 지정해 교육하고 있다.

2) 漢字의 選定 原則

어떠한 한자를 가르칠 것인가는 어떤 한자를 우선 배워야 하는가와 같은 것이며, 이는 곧 어떤 한자가 우선 필요한가와 통한다. 그래서 이러한 한자의 범위와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부터 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 기준은 과학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漢字의 出現頻度와 使用度, 偏旁構成能力과 語彙構成能力이다. 出現頻度는 말 그대로 해당 한자가 기록물에 얼마나 많이 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자의 使用度라 함은 한자가 각종 문헌이나 기록물에 사용된 出現頻度와 해당 한자가 출현된 문헌의 종류와 篇數를 정리한 分布度를 종합하여 일정한 공식에 의해 도출해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어느 특정 글자의 使用度와 出現頻度を 살펴봤을 때, 그 글자의 使用度와 出現頻度の 숫자가 접근할수록 그 글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숫자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된다는 것이다.⁶⁾ 그리고 語彙構成能力이라 함은 어느 한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하여 어휘를 구성하는 정도를 말하고, 偏旁構成能力은 다른 편방과 결합하여 하나의 글자를 구성하는 정도를 말한다.

그런데 실제 통계에 의하면 한 글자가 출현된 횟수는 많지만 使用度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出現頻度は 낮아도 使用度가 높은 것들도 많다. 1990년도에 발간된 『現代漢語頻率詞典』에서 出現頻度와 使用度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 使用度を 계산하는 공식은 각종 통계부호를 사용하여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것은 王還 外, 『現代漢語頻率詞典』,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0. 18쪽 참조바람.

<표 3> 출현빈도와 사용도 순위 비교표

	學	心	前	氣	幾	無	山
出現頻度 順位	46	82	91	111	124	149	193
使用度 順位	261	126	116	349	52	293	139

위의 도표에 의하면 ‘前’의 경우만 出現頻도와 使用도의 순위(91/116)가 접근되었을 뿐, 나머지는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중에서 “學·心·前·氣·無”와 같은 글자들은 출현횟수의 순위는 상당히 높지만 使用도의 순위는 뒤로 처지고 있으며, “幾·山”와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出現頻도가 높을수록 반드시 使用도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使用도의 順位는 글자가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의 교육범위와 순서를 정하는데 있어서 이들 통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위의 使用도 순위와 함께 중요한 것이 偏旁構成能力과 語彙構成能力이다. 일부 글자의 경우, 그것의 出現頻도나 분포도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글자나 偏旁과 결합하여 어휘나 다른 글자를 구성하는데 자주 사용된다면 이 글자도 반드시 먼저 배워야 한자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글자의 出現頻도 순위와 일치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이들 중 일부 글자의 語彙構成能力 순위와 出現頻도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어휘구성능력과 출현빈도 순위 비교표

	子	心	頭	氣	無	水	色	天	打	落
語彙構成 能力 順位	1	4	7	8	9	10	12	13	30	80
出現頻도 順位	24	82	75	111	149	102	287	54	136	492

이 도표에서 語彙構成能力은 출현횟수와 상관 관계가 별로 없으며, “氣·

無·水”와 같은 글자들은 비록 출현 횟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語彙構成能力의 순위가 모두 10위 안에 위치하고 있을 만큼 다른 어휘를 구성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出現頻度가 낮다고 하더라도 語彙構成能力이 우수한 글자는 반드시 다른 글자보다 먼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 외에 偏旁構成能力이 높은 글자들은, 해당 한자가 使用度나 出現頻度는 현격히 떨어진다고 해도 한자를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자의 교육 순서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자를 배우는 순서와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과학적인 통계를 활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出現頻度와 使用度, 偏旁構成能力, 語彙構成能力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使用度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학습용 한자의 순서를 정할 때 위의 네가지 요소에 각각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3) 韓國의 教育用 漢字 選定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에 교육용 한자 1,800자를 지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99년초에 문화관광부에서 ‘한자병용 추진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립국어연구원의 주관하에 한국한문교육학회에서 기초 연구를 한 후, 공청회와 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한 후, 교육부에 ‘한자병용방안’추진 차원에서 조정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0년에 기존의 1,800자에서 44자를 교체한 새로운 교육용한자 1,800자(중학교 900, 고등학교 900)를 지정 공포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준용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의 기본 원칙은 첫째, 동북아 한자문화권(한국·북한·일본·중국·대만)에서 널리

쓰이는 한자, 둘째, 한문 고전에 자주 쓰이는 한자, 셋째, 국어 생활에 자주 쓰이는 한자이었다.⁷⁾

이러한 기본 원칙은 보기에 따라서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 먼저 첫째 원칙인 한자문화권에서 널리 쓰이는 한자의 경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선정 기준이 없는 한, 그 기준은 한자를 선정하는 사람과 장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것은 둘째와 셋째의 원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기준과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애매한 원칙하에 글자를 선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위와 똑같은 원칙으로 다시 한자를 선정한다면 그 한자는 다시 바뀔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면 한자는 또 다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선정 원칙은 한마디로 객관성과 과학적 논리성이 배제된 원칙이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出現頻度와 使用度, 語彙構成能力, 偏旁構成能力에 대한 통계를 산출해내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들 항목의 가중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이들을 종합한 통계에 따라 한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선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용한자의 선정과정은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選定의 問題點

교육용 한자의 선정이 합리적인 듯 하면서도 상당부분 애매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다 보니 여기에 선정된 글자들이 모두 가장 필요한 한자로 이루어지지

7) 李允子, 『韓·中·日 教育用 常用漢字 比較研究』,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6. 제25쪽 참조.

못했다. 이러한 것은 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김홍규(새국어생활, 1999 봄, p.23)는 15,193,304자의 한자를 대상으로 텍스트출현빈도와 어휘생성빈도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여 이를 교육용한자 1,800자와 비교하였다. 비록 2000년에 발표된 교육용한자가 아니라 1972년에 발표된 교육용한자와 비교한 것이고, 또한 조사 대상의 글자가 1,500여만자에 불과해 정밀한 통계를 산출하기에는 미흡했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통계를 만들어냈다. 이에 의하면 교육용 한자가 1,800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0.251%, 한자어 생성 누적 빈도는 88.68%임을 밝혀냈다. 또한 빈도 순위는 높은데 교육용 한자에 보이지 않는 글자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⁸⁾

<표 5> 교육용 한자 외의 일부 한자 빈도 순위

글자	鄭	崔	宋	趙	尹	齋	殿	錫	型
순위	139	145	237	249	258	319	356	423	426

또한 위와는 반대로 빈도 순위는 낮은데 교육용한자에 있는 것으로는 “慙(3951위)”을 비롯하여 “予(4034위), 孰(4597위)” 등이 있다. 물론 출현 빈도만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현빈도가 아주 높거나 낮는데 교육용한자에서 배제되거나 포함된 것은 어느 정도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초등대상으로 교과서의 어휘를 분석 연구한 한 보고서(서종학·김주필, 1999)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학년이 높을수록 점진적으로 漢字語의 사용 양상이 많아지고, 그것은 현행『漢文敎育用 基礎漢字』1,800자와의 대비에서 초등학교 國語 교과서에 사용된 漢字語 構成漢字 가운데 기초한자 1,800자에 들어가지 않는 漢字가 553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⁹⁾ 이는 교육

8) 上掲書 제33쪽 참조

9) 上掲書 제39쪽 참조

용 한자 1,800자가 국어교육이 아니라 한문 교육을 위한 기초한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어휘이기 때문에 1,800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비율이 30%를 넘는다는 것은 한자의 선정에 있어서 그것을 선정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적지 않게 들어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4. 教育 段階別 漢字 選定 및 教育 活用에서의 一致度

처음으로 한자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한자부터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은 한자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처음에 가르쳐야 하는 글자의 범위와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이 차후에 배우는 한자의 습득 속도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용 한자 설정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용 한자가 공식적으로 배우는 첫 번째의 한자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별도로 일부 사설단체에서도 한자능력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수준별로 한자의 등급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중학교 한문교과서와 일반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자능력시험의 배정한자를 대상으로 한자 선정 및 순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中學校用 漢文教科書의 漢字 收錄 現況

다음에서는 중학교 한문교과서 중 임의로 4종을 취하여, 여기에 수록한 한자의 수량과 배정 순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수록 한자의 수량

우리나라 정부는 敎育用漢字를 1,800자로 정하고, 중학교부터 敎育을 시작하여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도록 배정했다. 먼저 초급에 해당하는 중학교 과정에는 900자를 배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한문교과서에는 敎育부 지정 900자만을 수록한 것은 아니고, 내용에 따라 교과서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임의로 4종의 한문교과서를 취하여¹⁰⁾ 교과서별로 한자의 수록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중학 한문교과서 수록 한자수 비교표

교과서 종류	수록 글자 수	敎育부 한자 외	敎育한자 중 미수록 글자수
甲	967	74	7
乙	987	87	0
丙	963	67	4
丁	987	92	5

위의 도표를 보면 네 종류의 교과서 모두 중학교용 900자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세 종류의 교과서에서는 900자를 훨씬 초과하면서도, 중학교용으로 지정된 900자 중에서는 오히려 각각 7자, 4자, 5자씩 수록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문교과서가 지정된 한자를 敎育시키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지정된 한자를 활용하여 한자 어휘와 한문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다 보니, 그것에 적합한 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과서에서 선택하고 있는 한자의 수량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서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교과서별로 선택한 한자는 그렇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교과서별로 선택한 한자와 다른 교과서에서 선택한 한자

10) 4종의 교과서는 참고문헌에 있음.

와의 공통성과 관련된 통계이다.

<표 7> 중학교 한문교과서 단독 수록 한자 수

교과서 종류	수록 글자 수	타 3종에 없는 글자 수
甲	967	82
乙	987	102
丙	963	78
丁	987	102
甲·乙·丙·丁 총합		1,249
甲·乙·丙·丁 공통자		885

위의 통계에 의하면 하나의 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한자가 다른 교과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78자에서 102자까지 다양하며, 이들의 비율은 각각의 교과서에 수록된 한자의 10% 내외나 되고 있다. 한 학교에서는 한가지 교과서만 교육하기 때문에 각각의 중학생으로서는 대략 980자 전후의 한자를 배우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들은 모두 중학교용 교과서이기 때문에 만일 이들을 모두 수록된 모든 글자를 합치면 서로 다른 글자가 모두 1,249자나 되어 중학교용 900자를 훨씬 초과한다. 즉 이 네 종류의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학교용 한자를 모두 합치면 1,249자나 된다.

그러면서도 이 네 종류의 교과서에 모두 수록된 글자는 중학교용 900자에 15자가 모자라는 885자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중학교용 한자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즉 이 교과서들은 주목적이 중학교용 한자 900자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900자를 위주로 하는 어휘나 한문 문장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판단된다.

(2) 教育 段階別 差異

중국이나 일본의 교육용 한자는 초보 단계의 경우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몇

글자를 가르칠 것인가를 정해 이에 따라 단계별로 한자를 배정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용 한자는 초보단계에 속하는 중학교용 교육용 한자를 900자로만 지정했을 뿐, 이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교육할 것인가 하는 보다 세분된 단계별 배정을 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 순서를 정하는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각 교과서마다 가르치는 한자의 교육 순서가 전혀 통일되지 않았다.

네 종류의 교과서마다 단원별로 배정된 처음부터 100번째까지의 新出漢字를 대상으로 상호간의 공통성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중학 한문교과서 단독 및 공통 수록 한자 수

	단독수록	타 1종과 공통	타 2종과 공통	4종 공통
甲	34	26	18	22
乙	43	19	16	22
丙	35	29	14	22
丁	45	18	15	22

위의 통계를 보면, 네 교과서 모두 다른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는 한자들이 40자 내외씩이나 된다. 그리고 타 1종과 공통으로 나타나는 글자까지 합해도 겨우 60자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4종 모두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글자는 겨우 22자에 지나지 않는데, 이 22자는 “漢·字·大·文·川·三·十·人·小·中·日·上·下·本·火·口·木·休·門·水·靑·洋”이다. 4종의 교과서에 공통으로 출현한다면 이는 한자를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 글자들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다른 글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워야 하는 글자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이 글자들과 우리나라의 한자빈도조사 결과(김홍규:1993)상의 상위 빈도 22자(國·大·文·金·學·由·李·人·書·東·法·一·子·三·史·韓·事·的·中·地·會·性)와 비교해보면, 위 두 부류의 22자에서 공통으로 출현하는 것은 겨우 “大·文·人·三·中”의 5자에 불과하다. 즉 4종 교과서에 출현하는 22자는 출현빈도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 된다. 이와 같이 4종의 교과서에서 한자 학습의 순서를 위해 선택된 글자들이 효과적인 한자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러한 것은 차순위인 101번째부터 300번째로 출현하는 200개의 한자에 대한 통계도 비슷하다. 우선 이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중학 한문교과서 공통 수록 한자표

교과서 종류	단독수록자	4종 공통자
甲	85	12
乙	89	12
丙	85	12
丁	73	12
4종 공통자 12종	知・數・友・交・不・之・四・苦・千・幸・萬・益	

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차상위 200자 중에서 4종의 교과서에 공통으로 출현하는 글자는 겨우 “知・數・友・交・不・之・四・苦・千・幸・萬・益”의 12자에 불과하다. 아울러 타 교과서에는 전혀 출현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선택한 한자는 교과서별로 각각 80자 전후이다. 이외에 약 100자 내외는 타 1종 혹은 타 2종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한자들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교과서별로 선택하고 있는 한자는 한자 교육을 위한 순서에 따라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2) 漢字試驗團體의 段階別 一致度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한자를 교육하는 것이 직접적인 한자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간접적으로 한자의 교육과 보급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민간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한자능력시험이라는 방식을 통해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들 단체에서 실시하는 한자들을 대

상으로 교육용 한자의 순서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1) 漢字試驗團體 教育段階別 配定

우리나라에는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로서 국가의 公認을 받아 漢字能力을 측정하는 시험, 즉 漢字能力檢定試驗을 주관하는 私設機關이 여러 군데 있다. 이 기관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한자를 선택한 후, 수준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중 가장 응시생이 많은 기관은 “韓國語文會”인데, 이를 포함하여 나름대로 응시 규모가 큰 4개의 기관을 선택하여, 이들이 규정하고 있는 등급별 한자의 숫자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시행 기관의 등급별 한자수 비교

	一級	二級		三級		四級	五級	六級	七級		八級	九級
韓國語文會	1급	2급		3급	3급II	4급	4급II	5급	6급	6급II	7급	8급
韓國外國語評價院	1145	583	317	500	250	250	200	150	100	50		
	1급	2급	3급	4급	준4급	5급	준5급	6급	준6급	7급	8급	
	1000	650	350	600	300	150	100	100	100	80	70	
大韓民國漢字教育研究會	1급	준1급	2급	준2급	3급	준3급	4급	준4급	5급	준5급	6급	
	1000	500	500	500	200	200	200	150	150	50	50	
漢字教育振興會	1급	2급		3급	4급	준4급	5급	준5급	6급	7급	8급	
	1200	1000		600	200	200	150	80	20	20	30	

위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급수는 1-3급 시험이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공인 여부에 상관없이 공인급수가 아닌 것을 포함하여 가장 기초적인 등급부터 최상위 등급까지 여러 등급으로 급수를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기관들이 평가시험에 배정한 한자의 총 수량은 모두 3,500자

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공통으로 배정된 한자는 전체의 85% 정도인 3,009자에 불과하다. 또한 각 등급마다 배정된 한자의 숫자도 기관마다 매우 차이가 많다. 예컨대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1등급의 경우만 하더라도 韓國語文會는 1,145자인데 반해, 다른 기관들은 1,200자나 1,000자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관 모두 公認級數資格證을 발급하는 범위인 一級부터 三級까지 배정한 한자를 살펴보면 韓國語文會는 2,545자이고, 韓國外國語評價院은 2,600자, 大韓民國漢字教育研究會는 2,500자, 漢字教育振興會는 2,800자로서, 이 역시 통일되지 않고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록 公認級數에 속하지 않지만, 漢字를 배우는 초보단계라도 판단하고 있는 최하위 등급에 속하는 글자의 배정도 이와 비슷하다. 즉 가장 초보단계인 九級만 하더라도 네 단체 각각 50·70·50·30자로서 배정된 숫자도 다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배정된 글자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九級부터 다음 윗 단계인 八級까지 합한 숫자에서도 각각 150자, 150자, 100자, 70자로서 전혀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들의 각 급수별 공통 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각 급수별로 가장 적은 숫자를 배정한 기관의 글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公認級數 段階인 一級에서는 1,000자 중에서 419만 공통된 한자였고, 二級은 583자 중 219자, 三級은 500자 중 182자, 그리고 非公認級數 段階인 四級은 200자 중 16자, 五級은 150자 중 12자, 六級은 100자 중 한 글자도 없으며, 七級은 80자 중 1자, 八級은 40자 중 8자, 九級은 30자 중 25자였다. 이렇게 볼 때 九級이 공통되는 한자가 대략 80%를 상회할 뿐, 50%를 넘는 급수는 단 하나도 없으며 심지어 六級과 같은 경우는 공통된 한자가 전혀 없어 급수별 한자 배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漢字試驗團體의 段階別 글자 配定 順序

이들 기관에서 말하는 수준별 한자의 선정 기준을 보면, 모두 단순히 한자

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배정했다는 애매한 표현만 하고 있으며,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기준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선정의 문제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使用度와 出現頻度, 偏旁構成能力과 語彙構成能力 등에 적용하는 분석은 전혀 불가능하다. 오직 이들 간의 수준별 한자 배정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이들이 지정한 수준별 한자를 임의로 300자를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이 기관들이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漢字의 出現頻度 100위 안에 들어 있는 한자들을¹¹⁾ 어떤 급수에 배정시키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먼저 상위 10위 안에 들어 있는 글자들의 급수별 분포도이다.

<표 11> 기관별 배정 사용빈도 상위 10위 한자의 급수별 분포(숫자는 급수임)

순위	한자	어문회	평가원	연구회	진흥회
1	國	9	8	7	7
2	大	9	9	9	7
3	文	8	7	8	8
4	金	9	9	9	8
5	學	9	8	7	7
6	由	7	7	6	5
7	李	7	4	6	6
8	人	9	9	9	9
9	書	7	8	7	6
10	東	9	9	9	8

出現頻度 상위 10위 이내라 하면 사실상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글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위의 도표에 의하면 10개 글자 가운데 國, 大, 學, 由, 李, 書는 여전히 2개 층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글자들조차 배정된 수준이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1) 韓國에서의 漢字 出現頻度는 “金興奎, 〈國語生活의 漢字 使用 頻度 研究〉, 새국어생활, 1999年, 第9卷 1號”를 근거로 함.

조사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11~100위 글자 가운데 층위의 격차가 큰 글자를 정리한 것이다.

<표 12> 出現頻度 上位 100位中 層位差가 큰 漢字(숫자는 급수임)

順位	漢字	語文會	評價院	研究會	振興會
11	法	3	7	6	5
15	史	6	7	6	5
16	韓	9	8	7	7
23	化	6	7	6	5
26	州	6	3	6	3
28	民	9	7	7	7
32	高	7	8	7	6
41	朝	7	8	7	6
43	行	7	8	7	6
45	社	7	3	4	3
50	宗	5	5	4	3
51	錄	5	3	4	3
53	成	7	8	7	6
55	長	9	8	7	7
56	者	7	8	6	6
63	部	7	8	7	6
64	軍	9	7	7	7
67	明	7	8	7	6
69	寺	5	6	4	5
70	院	6	3	6	3
72	公	7	7	6	5
75	定	7	7	6	5
76	集	7	6	6	5
78	光	7	8	7	6
80	動	8	7	6	5
85	朴	7	4	6	6
89	相	6	7	6	5
93	詩	5	5	7	6
94	德	6	7	6	5

위의 도표를 보면 적게는 2개 층위가 나는 것부터, 많게는 '社'와 같이 4개 층위가 차이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글자의 숫자도 35개나 되어,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35%나 차지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것은 각 機關마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그 바탕 위에 敎學用 한자의 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임의대로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5. 結語

앞에서 우리 나라의 敎育용 한자 선정과 敎育과정에서의 선정 순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에서 敎育용 한자 1,800자를 정하기까지에는 정부의 한자 정책에 있어서 여러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우리의 敎育용 한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한자의 선정은 出現頻度와 使用度, 偏旁構成度, 語彙構成度 등을 조사하고 분석 정리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모두 적용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 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이해조차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지 않은 선정이었기 때문에, 敎育을 위한 한자의 순서를 정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敎育을 위한 한자의 순서를 세분화하지 않고, 1,800자를 크게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으로 둘로 나눌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자를 敎育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방법을 수립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자 敎育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먼저 우리 나라에서 과거에 사용되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漢字를 대상으로 出現頻度を 비롯한 使用度, 偏旁構成度, 語彙構成度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를 바탕으로 敎育용 한자의 범위와 敎育 순서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사와 분석 결과를 한자 선정의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네 가지 조사 결과에 대한 적용가중치를 적절히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빈도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되고, 偏旁構成度나 語彙構成度を 너무 무시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들의 비중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한자의 선정 범위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세째, 漢字語에 대한 조사도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출현하는 漢字語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모두 포괄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학교에서 교육할 때 수준에 따라 적절한 한자를 선택하고, 그 한자로 이루어진 적절한 어휘를 골라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위와 같은 모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할 한자의 범위를 정하고, 또한 어떤 한자를 교육의 어느 단계에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김언중 외, 『중학교 漢文』, 서울: 교학사, 2012.
- 송재소 외, 『중학교 漢文』, 서울: 다락원, 2012
- 안대희 외, 『중학교 漢文』, 서울: 천재교육, 2012
- 안재철 외, 『중학교 漢文』, 서울: 미래엔, 2012
- 金興奎, 「國語生活의 漢字 使用 頻度 研究」, 『새국어생활』, 第9卷 1號, 1999.
- 李允子, 「韓·中·日 教育用 常用漢字 比較研究」,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王還 外, 『現代漢語頻率詞典』,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0.
- 전국한문교사모임 홈페이지 hanmun.eduhope.net
- 拙稿, 「初學者教學用漢字選定問題探究」, 『The 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ulture of Chinese Characters and Language 論文匯集』, 오클라호마, 2014.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Korea and Chinese Characters
for Education

Lee, Kyoo Ka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ider on the real condition of selection and assign of chinese characters for beginning students in Korea. There is two institutions for beginners, one is middle school as an official organization and another is test institute as a private agency. According to result of study, there were quite a few problems with this conditions and to correct that we must do it as follows.

First, must to survey all of chinese characters that is used in the past and now in Korea on the frequency, range of use, ability of organization of components, ability of organization of words.

Secondly, in order to apply the survey and analysis result to practical instruction, also make research on weighted value of apply about four section came up in above.

Finally, to decide scope of selection and assign of chinese characters based on result of research on the four sections.

Key words : Education of Chines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for Education, Order, Statistics, Textbook of Middle School

투 고 일 : 2015. 1. 10. / 심 사 일 : 2015. 1. 15. ~ 2015. 2. 15. / 게재확정일 : 2015. 2. 16.
